

“시립제2요양병원 노조와 운영 정상화 최선”

현 여건으로는 위수탁 공모 어려워

광주시 “노조와 대화 통해 상생방안 마련”

광주시가 시립제2요양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요양병원 노조와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14일 시립제2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위탁 운영 중인 전남대병원에서 요청한 최종 통보 기한인 17일까지 노조와 함께 상생방안을 찾아 운영 종료라는 극단적 상황을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와 함께 고풍을 같이한

직원들의 삶의 터전인 병원을 지키기 위한 노조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승적 차원의 상생방안을 찾아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립제2요양병원은 개설 시점부터 10여년 간 전남대병원이 수탁 운영하다가 지난 7월 31일 계약 기한이 만료됐다. 광주시는 병원 수탁자를 공모했지만, 적임자가 없어 전남대

병원과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전남대병원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5월 수탁자를 공모해 1개 의료법인을 선정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고용 승계와 적자비용 보전 등의 문제로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지난 8월 조례를 개정해 공익적 비용 지원 등 위탁 조건을 마련, 추가 공모를 추진했으나 신청 의뢰기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동안 노조가 근로조건을 포함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50일간 파업을 진행하는 등 시립2요양병원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노조는 입단협이 체

결되지 않은 채 잠정 복귀, 현재 병원은 부분 휴업 상태로 운영 중이다.

시립제2요양병원 건립 추진 당시인 2006년 광주시에는 요양병원이 7곳 뿐이었지만, 현재는 62곳에 1만 4438병상이 운영 중이다. 이는 65세 이상 1000명 당 전국 1위, 병상 가동률은 67%로 수요 대비 과포화 상태이다.

사회복지시설 용도인 해당 부지 특성상 병원 운영이 종료되면 동일 장소에 의료기관을 다시 개설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노조에 대승적 차원의 상생 방안을 찾으며 호소하고 있다.

/김도기 기자

겨울철 도로제설·화재대응시설 확충

광주시, 국비 62억 확보...염수분사장치 3곳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겨울철 안전을 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제설과 화재대응 기반시설을 확충한다고 14일 밝혔다.

종합건설본부는 앞서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도로제설을 위해 ▲도로포장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35억 원 등 총 62억 원을 확보,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상습결빙과 제설 취약구간인 고저나들목·본덕나들목·상무교차로 도로에 염수분사 장치 설치

공사를 이달 중 착공,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루평균 14만대가 통행하는 무진대로 우산방음터널 양 방향과 제2순환도로 진월방음터널(각화나들목 방향)에 대한 차량진입 차단시설을 내년 3월까지 설치한다.

차량진입 차단시설은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통제를 위한 시설이다.

또 본격적인 겨울이 다가오기 전 동문대로와 서문대로 등 잔여구간 3개 노선에 대한 재포장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일상 기자

“신책 명소서 씬·낭만 만끽” 전남, 달마도 등 추천

“전남 산책 명소에서 깊어 가는 가을의 낭만과 씬을 만끽하세요.”

전남도가 14일 만추의 정취를 만끽할 산책 명소로 여수 가사리 생태공원, 목포 고하도, 영암 기찬곶길, 해남 달마도도를 선정했다.

‘여수 가사리 생태공원’은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넓은 습지로 갈대밭 사이를 산책할 수 있는 데크길이 여유로운 씬을 이끈다.

이곳 방조제에서 보이는 훗날리는 갈대밭과 노을은 경관이 아름다워 국토교통부의 ‘남해안 오션뷰 20’에 선정되기도 했다.

‘목포 고하도해상테마크’에 위치한 해상데크길은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에서 대승한 후 머물렀던 고하도를 한 바퀴 둘러볼 수 있도록 조성된 바다 위 둘레길이다.

용머리탐방로, 해안동굴탐방로, 용오름둘레길 3구간으로 나뉜다. 용머리탐방로는 나조가 아름다운 코스로 일몰 시간에 맞춰 걸어보면 좋다.

‘영암 기찬곶길’은 월출산의 기(氣)를 느낄 수 있는 힐링 산책로다. 40km에 이르는 기찬곶길은 가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길(6.7km), 문화를 체험하는 길(7.9km), 왕인박사·도선국사 역사 체험 길(7.8km), 생태체험길(8.9km), 오감체험 길(8.2km), 5가지 테마로 조성됐다.

본사 인사

▲ 편집장 지역사회보장 차장 김재욱 (목포 주재)
2023년 11월 15일자



전남재가노인 종사자 한마음 잔치

전남도는 14일 영암청소년수련관에서 전남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화합한마당 행사인 체육대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전남도 제공

예산 축소 여파...광주 금호동~매월동 도로 개설 차질

내년도 예산 편성 미반영...준공 시점 늦춰져

정부의 예산 축소 기조가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을 불러오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구 금호동 로렌시아 아파트~매월동 한국아파트 아파트 간 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 도로는 길이 500여 m·폭 20m로, 준공 예정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다. 소요 예산은 194억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까지 토지 보상률은 30~40% 수준이다.

관계 부서는 올해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 토지 보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의 보상은 어려운 실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이 도로 개설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계획했던 도로 준공 시점은 기약없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도로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변 주민들의 요구로 2020년 도로 개설을 설계했다”며 “하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제외되면서 준공 시점 또한 기약할 수는 없는 상

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내년도 예산규모가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광주시가 최근 편성,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은 6조 9083억 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2019억 원 줄어든 규모다.

정부 예산 축소의 여파로 여러 사업을 줄라 났 수 밖에 없는 광주시는 사업의 시급성·진척도(공정률)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마무리 사업 위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조일상 기자

“광주·전남·전북연구원, 메가시티 함께 논의하자”

강기정 시장 “인구 늘려 주변 도시 키우고, 광역경제권 구축”

강기정 시장은 14일 메가시티와 관련, “지난 금요일 전략회의를 통해 광주·전남·전북연구원이 함께 논의를 시작하자”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생활인구를 늘려 주변 도시를 키우고, 궁극적으로 광역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옆 김해와 양산, 대구 옆 구미와 경산, 울산 옆 포항과 경주가 함께 커는 것처럼 광주와 주변 도시가 함께 광역경제권으로 커지는 것이 광주시가 생각하는 메가시티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대한민국 인구 중 호남 인구가 24%였는데 지난 60년 동안 9.7%로 줄었다”며 “반면 지난 60년 동안 수도권 인구는 21.2%에서 50.2%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전년 대비 광주를 떠나는 인구가 7600명인데 이중 55%는 청년들이었다”며 “이중 5700명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으로 떠났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우선 광주·전남·전북의 연구원들이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공동 논의를 시작했으면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조일상 기자

전남 ‘빈대 청정지역’ 유지...선제적 차단 방역

시·군 보건소 합동대책반 구성...상담전화 운영

전남도가 전국적인 빈대 확산으로 도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선제적 차단 방역에 나섰다.

전남도는 14일 현재 지역에서 빈대 출몰·피해 사례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빈대가 출몰함에 따라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빈대 합동대책반을 구성한 가운데 도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12월 8일까지 4주간을 ‘빈대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22개 시·군 보건소에 빈대 상담전화(120번) 운영을 통해 즉각 방제 태세를 갖춘 가운데 1억원을 투입

해 기존 약제보다 내성에 강한 살충제와 스틱·청소기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중 이용 숙박시설,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 빈대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시설 1만 7000여곳을 대상으로 침구 위생, 빈대 흔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빈대 발생 시 영업자는 자체 방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방제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선 시·군 보건소 방제반이 지원키로 했다.

전례 없던 빈대를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방역협회와 함께 보건소 방제반의 전문적인 기술교육도 실시한다.

/김 호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호남매일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